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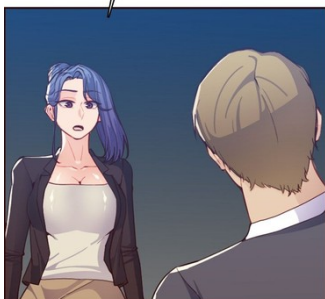




잠이 안와서
다시 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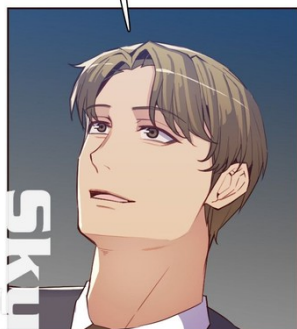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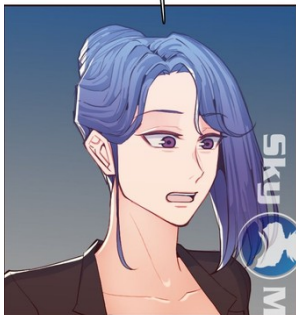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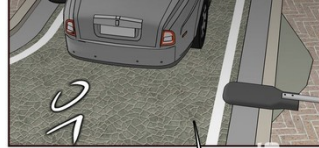
저, 아줌마...

시간 괜찮으시면
드라이브 어때요?



드라이브?





네네~
어디로
모실까요?



0/6



에엣?
저, 정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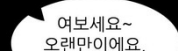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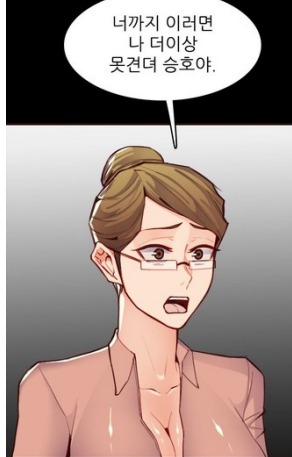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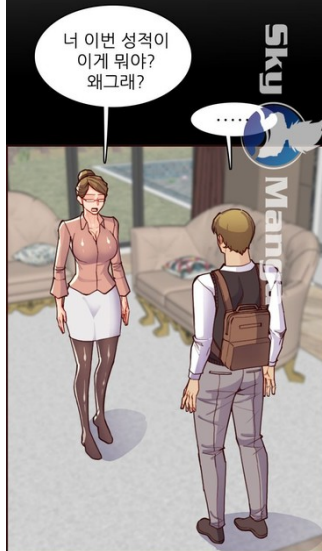


skyManga

세상에
어떡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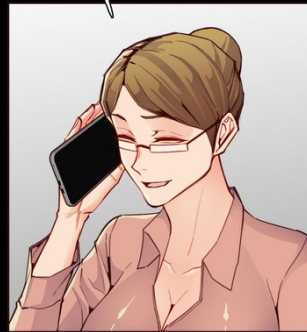




기철엄마.



전에 말씀하신
스타 강사 말인데,
개인과의도 가능
한가요?



에이~ 욕심은요.
할때 확실하게
해야죠. 호호호~



그럼 좀 알아
보시고 연락...

그만 좀
하세요 제발!!



Skymanga

지금도 숨이 막혀
힘드데 아예 숨통을
끊을 생각이에요!?

sky
Man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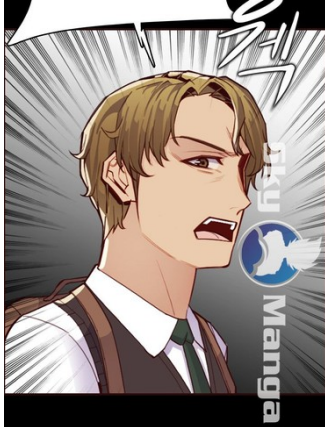
스, 승호야...

이게 다
널 위해...

항상 절
위한다지만 결국
엄마 욕심이잖아요!!

절 핑계로
엄마 인생 즐기려
하지 마세요!!

skyManga



지긋지긋
해요, 진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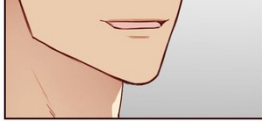


SkyMan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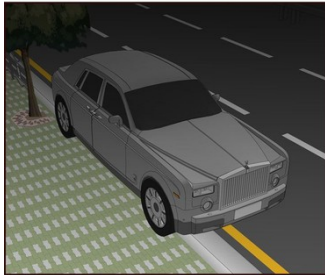
결국 또 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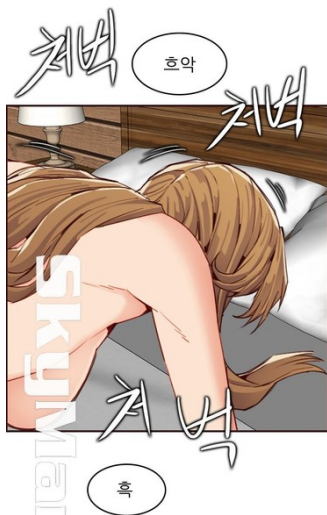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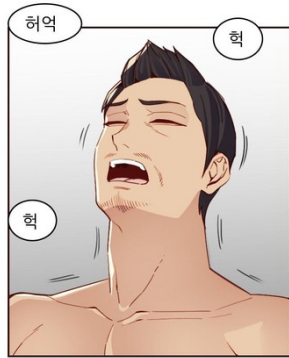
나, 나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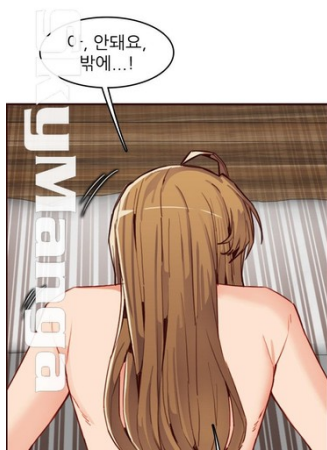


하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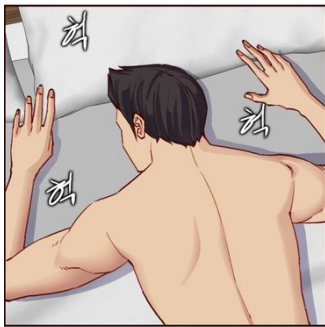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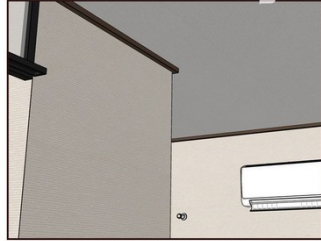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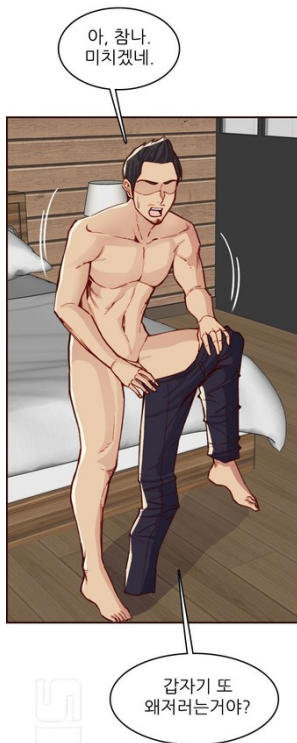
아











skyManga







To be continued...

-서페이드-



<https://blog.naver.com/jdj4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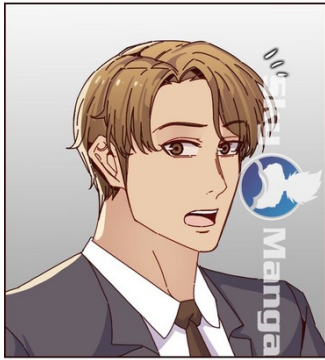
@ jdj4977@naver.com



웹툰 코이 컨텐츠



뭐 하나만 물어보자.



네가 가진 판타지...라는거 어떤것들이야?

네?



아니 그냥 궁금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아...



판타지 라는게... 저기... 그런거겠지?





그냥 그...
뭐랄까, 처음에는
아름마와 소프트한
상상만 했었는데....



소프트한
상상?



아~

스킨십이나
키스정도?

처음엔
그러다가 점점~?



흐음~ 어디까지
갔을까...?

궁금해라~

거의 뭐...
안 해본게 없을
정도로 끝까지 갔죠.

SKYmanga



헐...

얘기 좀
해봐봐, 너무
궁금해~



에이~ 그런걸
어떻게 얘기해요.

어라,
이녀석봐라.?
엄마한테 이른다?



아
진짜!

좋아요. 다 얘기
해드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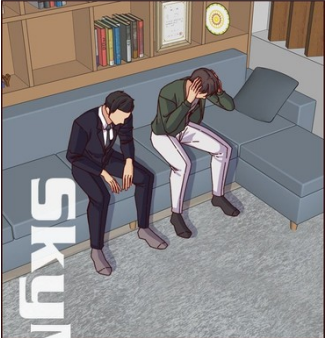


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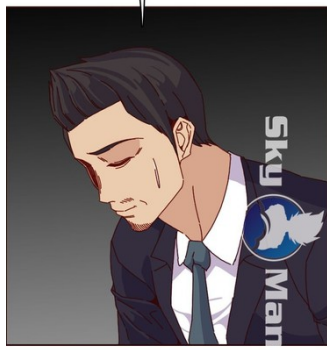
대신...
조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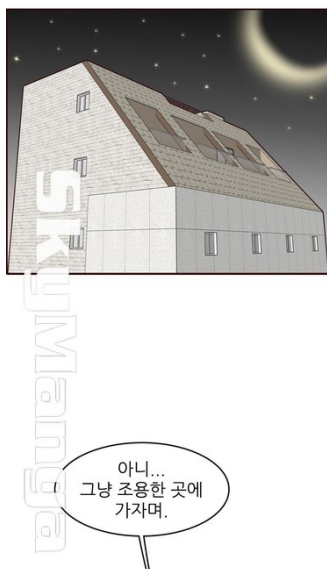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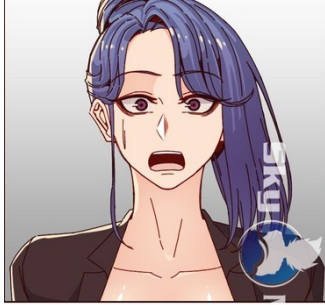
들어주실거죠?



....







여기만큼
조용한 곳 있음
말씀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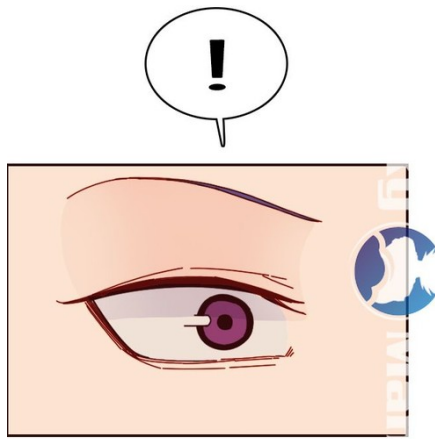


그래도 이런
호텔은 좀...

그리고 저는
아무데서나
얘기같은거 못해요.



공황장애도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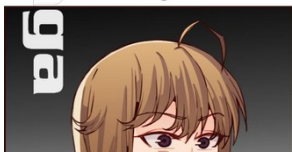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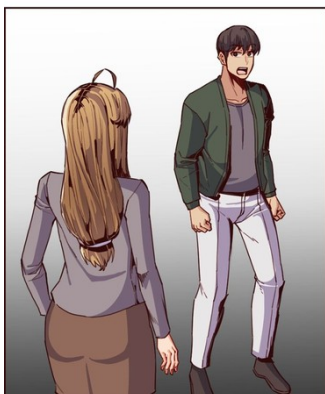
skyMan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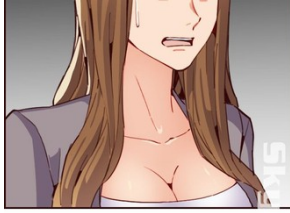
To be continued...

-서재이득-
<https://blog.naver.com/jc4977>
@jc4977@naver.com









저 사람은
며칠 전 소개팅
했던...



맘에 들어서
연락 기다리는
중인데 하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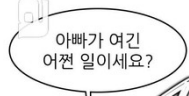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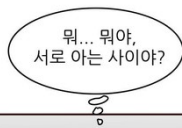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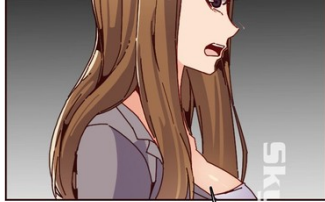
근데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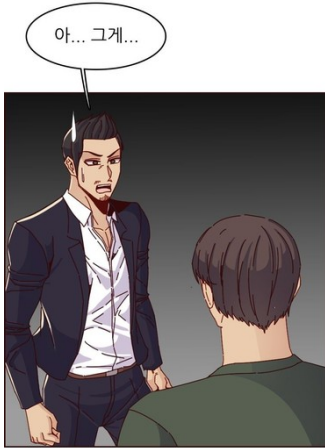


skymanja

이, 인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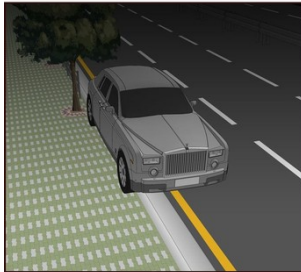








.....





아냐, 그럴수도
있지 뭐.
이해해.



그, 그럼
좋아해도 되는
거죠?!

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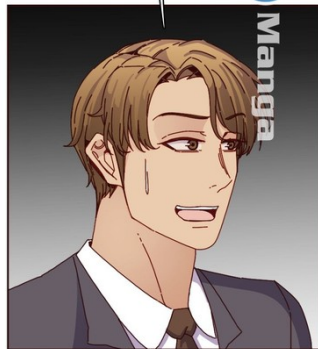
아니 뭐...
좋아하는건 네 맘이니
내가 어찌할 수 있는건
아니지.



하지만 나한테도
그런 맘을 바라는건
좀 무리지 않을까?



그게... 이미
고딩때부터 판타지가
되버려서...



판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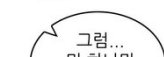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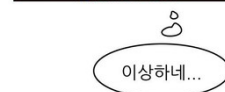
너 그럼
설마...

.....



마, 맞구나
이녀석!!

아니 뭐
나 혼자 상상한건데
죄가 되느라 아니!





역시~ 숫기없는
애들한테는 인터뷰
방식이 딱이니까!



언제니?
그런 마음을 가진
시기가?



그게...

아줌마가 처음
우리집에 오셨던
날이었을 거예요.



헐... 그럼
처음부터?

아니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아줌마인데
어떻게 첫눈에
빠질수가 있지?



SKYMANAGER

이해가 안가네?

제가 원래
좀 그래요...





너무 예뻐서...가
아니었군...

그럼...
팬타지라는건
언제부터...?



그것도...
그날요.



제가 상상으로만
떠올리던 이성상
이었는데...



그날 아줌마가

딱 그 모습이었어요.



희고 매끈한
피부에,



풍만한
가슴.

그리고
늘씬한 다리까지...



그때 내
웃차림이
—랬었나?

그냥 대충
입었는데...





그래서? 그날
그 모습을
떠올리며...?

네...



어떤
상상이었어?



얘기해봐.
궁금해.



음...
그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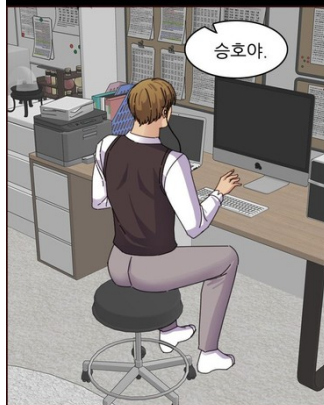
해봐,
괜찮아.

그나마 현실적인
상황을 만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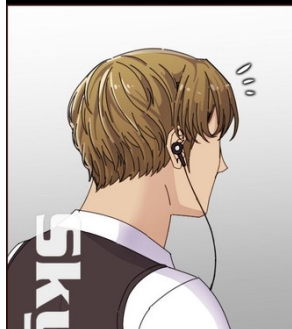


아줌마가 절
유혹하는걸로...

흐음~



승호야~!



네.



이모집에
잠깐 다녀올테니까
아줌마랑 같이 좀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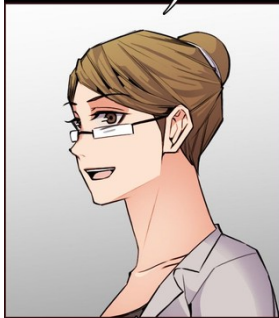
아이참...

나도 집에
가야된다니까
언니.



아유~ 기집애
고집은 진짜.

금방 다녀
올테니까 있어.
저녁은 먹고 가야지.



내 단골집
가서 먹자.
그집 끝내줘.

그리고 우리
승호공부도
좀 봐줘. 너
공부 잘했잖아.



내가 뭘...

다녀올게~~

응, 언니...



Manga

음... 승호야.
아줌마가 공부하는거
좀 봐줄까?



네?

아, 네.
그, 그러세요...



여기까진
어때요?



SKYMANAGER

괜찮은데?
나름 개연성도
있어 보이고.

암튼 그래서?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뭐... 당연히.

뭐야~ 공부가
아니라 게임
중이었네.

아..하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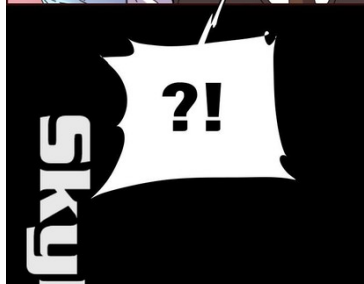


어? 우리아들도
이 게임하던데,
재밌니?

!



아, 저,
아, 아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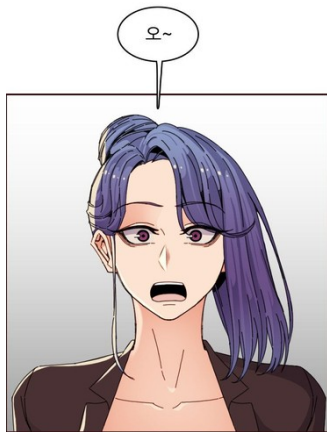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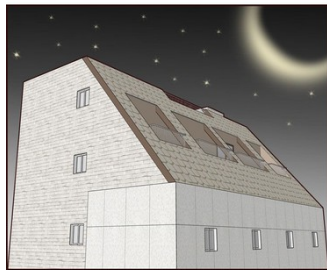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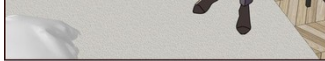
To be continued...

-치매미드-
<https://blog.naver.com/44157/>
@ jh41577@naver.com









얘기만 하고
나가긴 너무
아까운 방이긴하다.



그, 그럼
더 있다가 가도
되긴해요...



됐거든~
나 좀 씻어도
되지?



아...네

너도 그냥 있지말고
내게 들려줄 얘기
떠올려놓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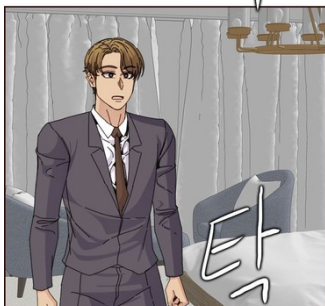


대충 지어낸
얘기면 딴 생각으로
여기 온걸로 간주하고
너 죽는다~



아,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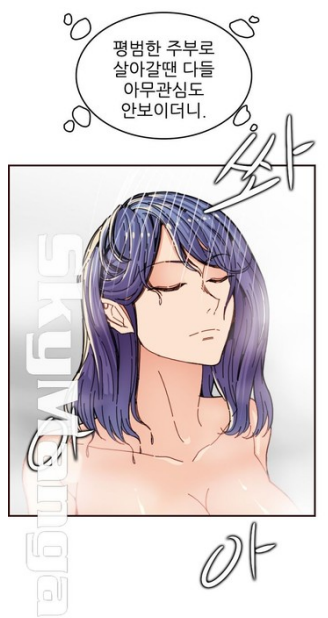
끼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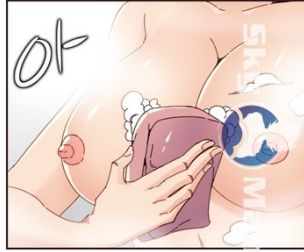
근데...
굳이 샤워는
왜...?



ang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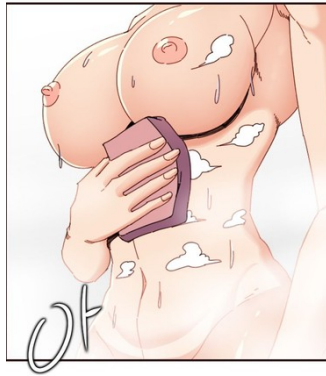


대학을 가자마자
이게 무슨일이야
증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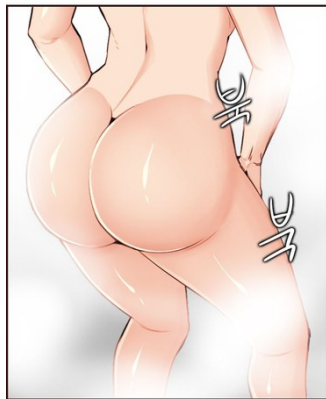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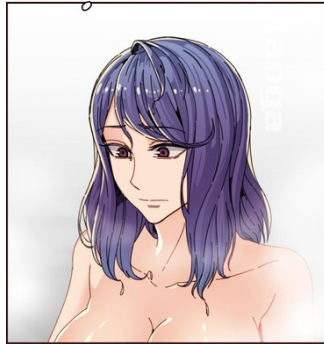
이럴줄 알았으면
고생하더라도
일찍 대학에 갔어야
되는건데.



그럼 좀 더 자유의
눈을 떴을...



아우~ 그자식...
거기에 뭔짓을
해놔길래 아직
아픈거야.



아





아~ 개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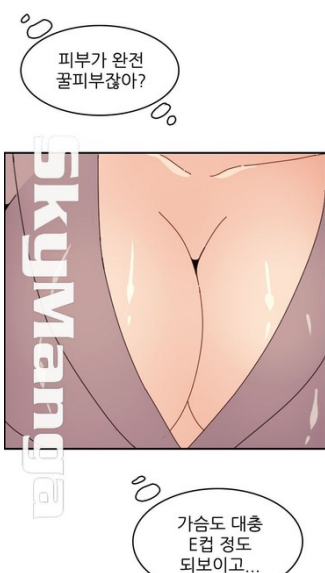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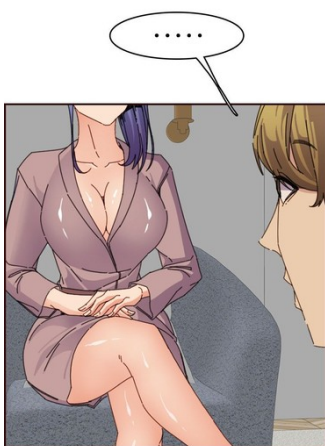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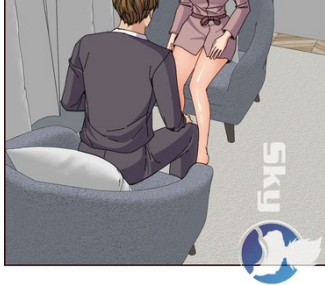
이제 좀
술이 깨는 것
같아.

가운이 뽀뽀하긴
해도 색도 예쁘고
엄청 고급지다.



자, 준비 됐으면
얘기해줘. 궁금하다.





늘씬한 다리도
여전하네.



뭐해? 빨리
안하고?



아니다, 내가
물어볼테니 거기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하자.



sky
manga

아, 네.
저도 그게
좋겠어요.





sky

아...
네.



Manga



sky
Man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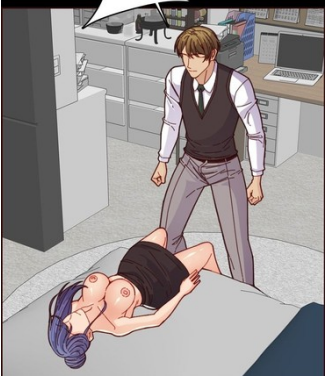
sky Manga

터



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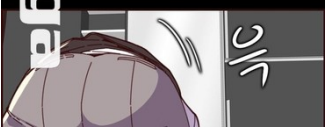
꿀

떡



SkyManga

스





sky
Manga

후아...



숨이 턱
막힐 지경이야.



썩



썩

흡...



sky
Manga



쭈
음

쭈
음

하악



하앗...

스, 승호 너
왜이렇게
잘해?

?



아... 그냥
아동도 보고
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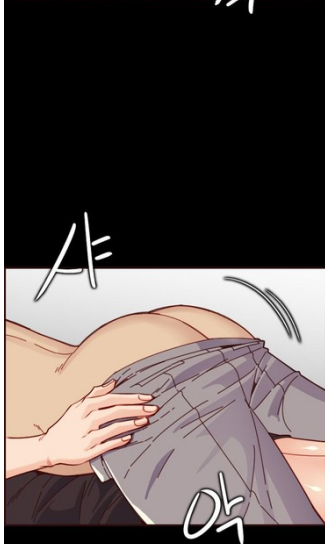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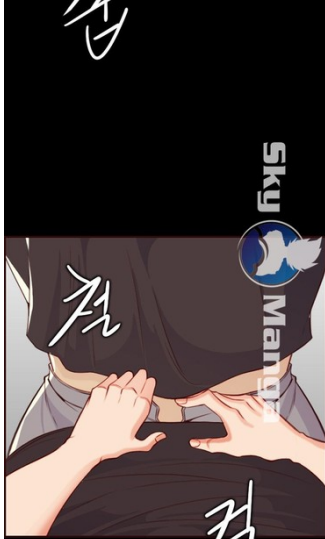


아~ 뭐야
이녀석~



완전
귀여워~!





.....!

sky
Manga

그, 그게
아니라...



나와
버렸어요...



에엑?
진짜!?

아 뭐야~ 아직
넣지도 않았는데...



죄, 죄송해요,
아줌마.

skyManga

그렇게 아줌마에



skyMan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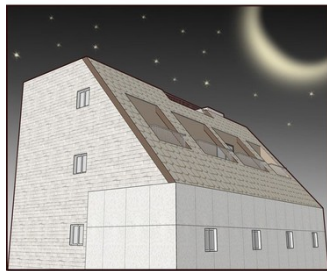
To be continued...

-서재미드-
<https://blog.naver.com/jr41977>
 @ jr41977@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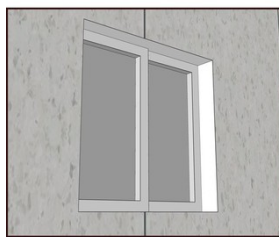


웹툰 코이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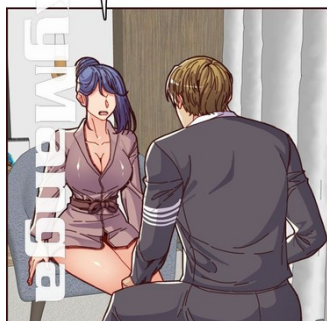
스커트 안쪽말이야.
어떠냐고.



어머어머
애좀봐~?



해가 언제
떠
왔다고...



제 상상요,
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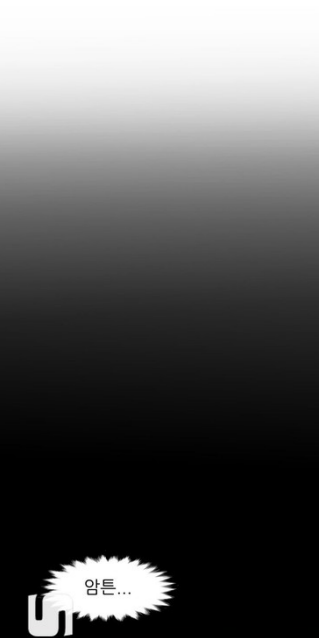
아, 맞다.
상상...



난 또 네가
너무 실감나게
얘기를 해서.

그만할까요?

아, 아냐. 계속해줘.
그래서, 그다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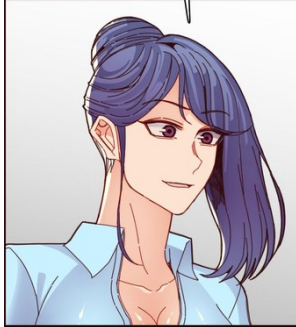




그럼~



아줌마도
너랑 동갑인 아들이
있어서 성적 호기심 같은
문제는 잘 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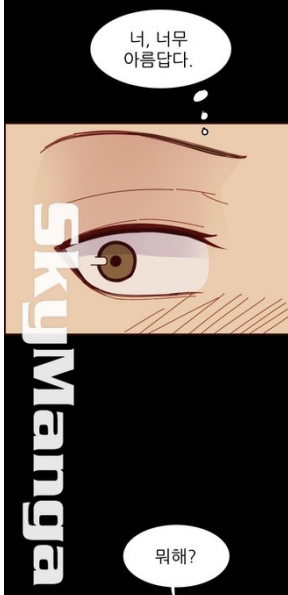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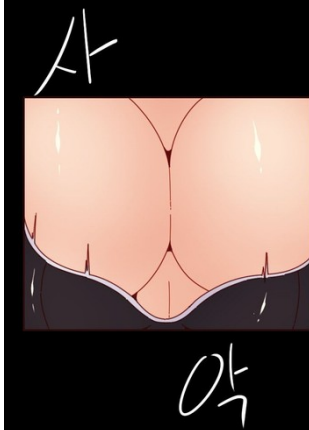
.....



네... 보,
보여주세요.
보고싶어요.



그래~ 대신
비밀이다?





Sky



Manga

만져봐.
괜찮아.

아...
네.





진짜 부드럽고
말랑말랑하잖아?



승호야,
뭐하니...?

네?



그렇게
떡 주무르듯 말고
부드럽게 애무를
해야지.





아냐,
괜찮아~

어때,
첫 소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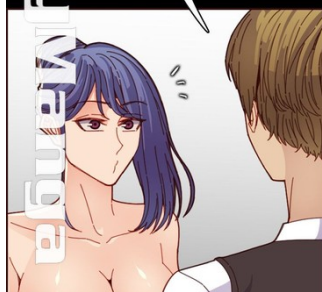
너, 너무
부드러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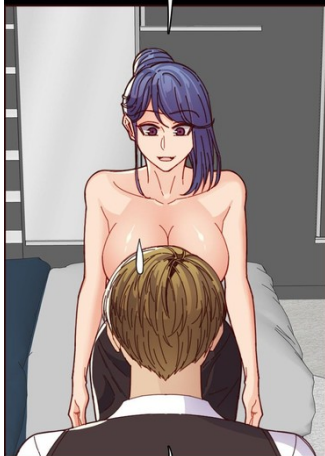
보기에는
뽕뽕하셔서
단단할 줄 알았는데,
말랑거려서 신기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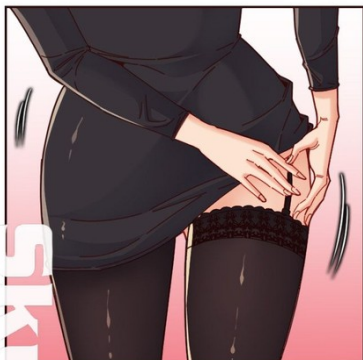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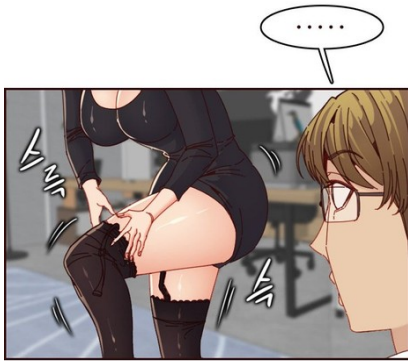
말랑... ㅠ
탄력이라고
얘기해줘 승호야...

근데 저...
아줌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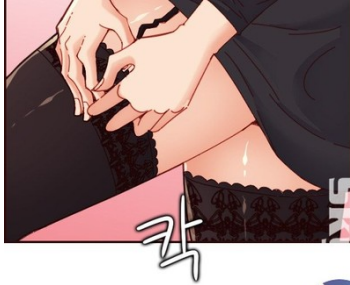




꼭웃외사예요.



skyManga





뭐?



너, 그런 표현도
직장내 성희롱에
포함되는건 알아?



!

죄, 죄송합니다.
아줌...아니, 과장님.



후후, 농담이야
농담~

그리고 업무시간
지났으니까 편하게
아줌마라고 해도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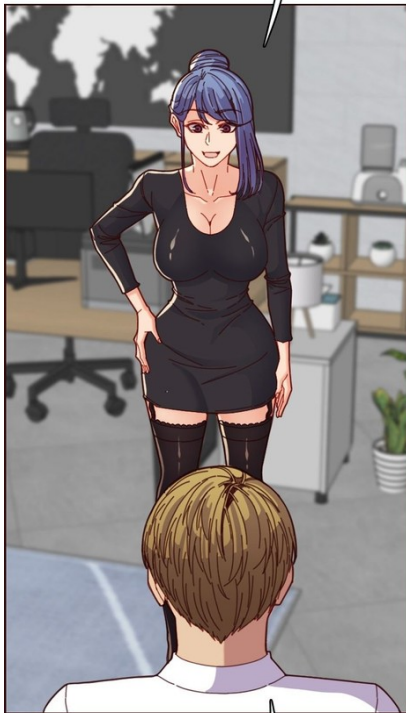


엄마 친구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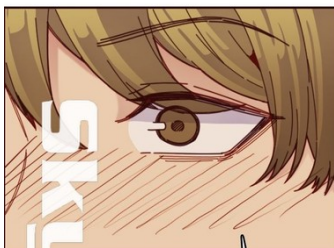
아무튼,
이거 어떠니?

이번에
나올 신제품
인데.



아...
예뻐요, 엄청.

아 뭐야~
예쁘기만 해선 안돼.
섹시해야된단 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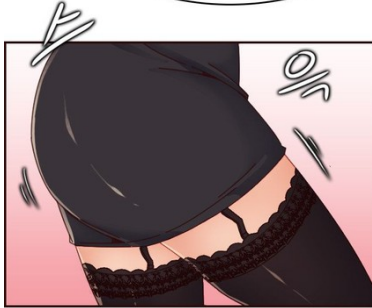
무, 물론
섹시해요.

스커트 바로
아래 밴드가
섹시 포인트인데,
괜찮아?





그러다가 계단
같은 곳을 오를땐
벨트가 살짝 드러나고.





마, 만져
보라고요?

당연하지.
촉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거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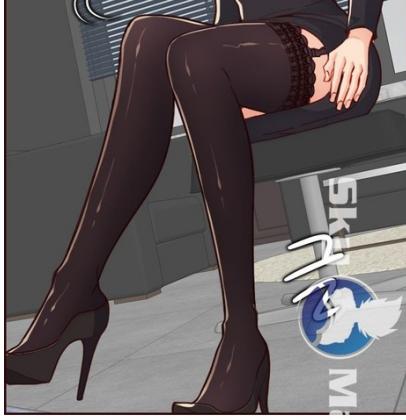
매번 알려주는
것도 힘들다.

죄송합니다.

skyManga

거기 앉아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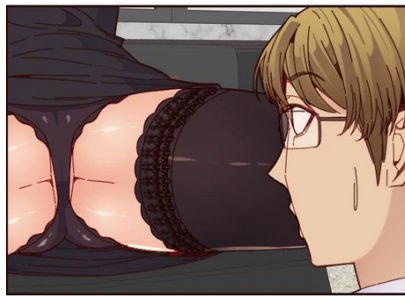




스커트 안쪽말이야.
어떠냐고.



.....



아, 아줌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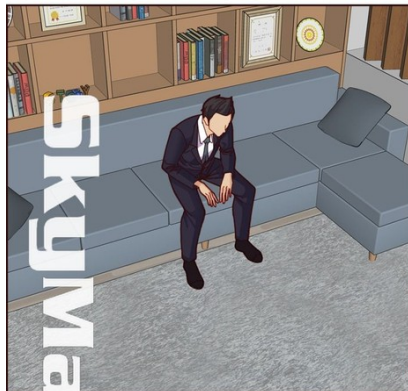


확인해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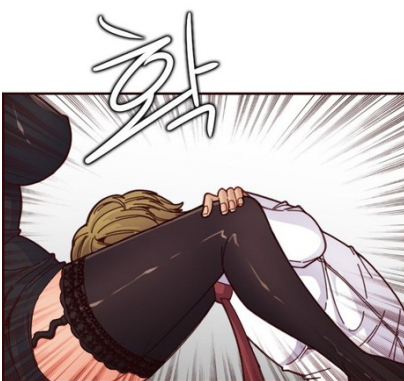




-67화-



5kyManga



Skymanga





하앗...

뭐야, 진짜
하는거처럼 실감...



?!



우와아앗!?

뭐, 뭐야?!



너, 너 지금
꺾하는거야!

아흑...!

SKManga



To be continued...

SKYJmanga

-서페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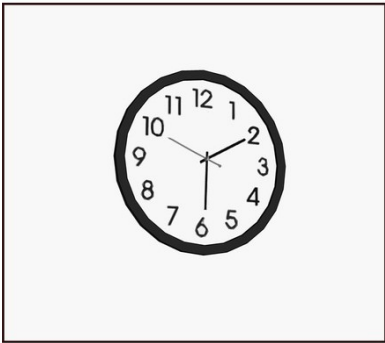
 <https://blog.naver.com/jdj4977>

@ jdj4977@naver.com



웹툰 코이 콘텐츠







설마...



인호녀석이
얘기를 해버린
걸까?

아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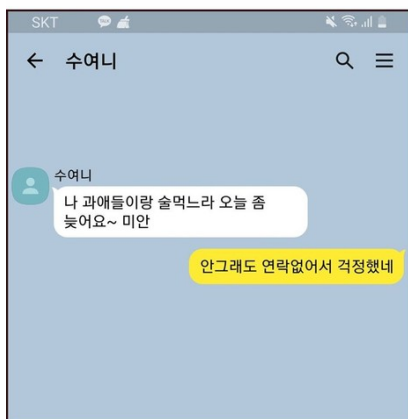
그랬다면
그 성격에 벌써
난리가 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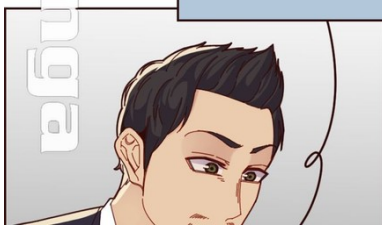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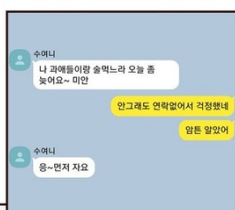
SkyManga



AA



SkyManga





휴~
다행이다.



SkyManga





혼날줄 알았는데
의외로 덤덤히
넘어가네?



다행이네요.

근데 아줌마.
괜찮으세요?



응?
뭐가?

아까...

흥분을 좀
하신 것 같아서...



내가?

에이~
설마.

피곤해서
그랬겠지.



.....

암튼...
그게 끝이야?
좀 끈기 싱거운걸?

상상만으로
너무 흥분이
돼서요...





두번째부터는
상당히 자극적일
거예요.



첫번째랑
연결이
되는거야?



아뇨.

전혀 다른설정
이에요.





아줌마가 오피스
여상사. 제가 신입인...

우왕~ 기대된다.
빨리해봐.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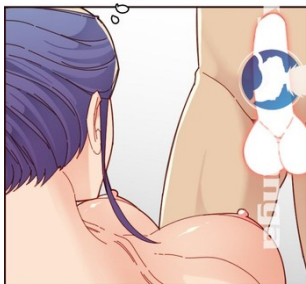


큰 회사야?
대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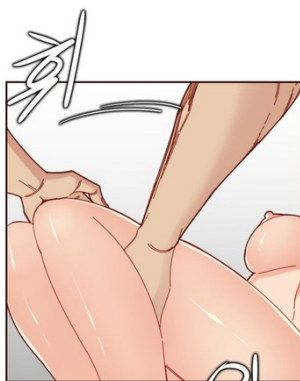


아뇨.
그냥 작은
수업회사예요.

요즘 애들이
다 큰거야, 아님
내가 큰 애들만
만나는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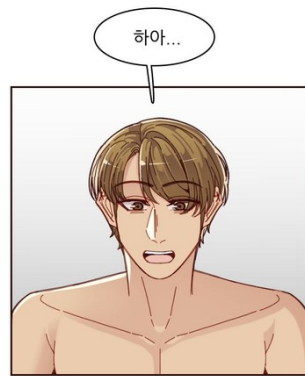
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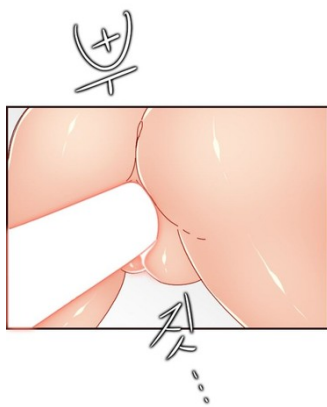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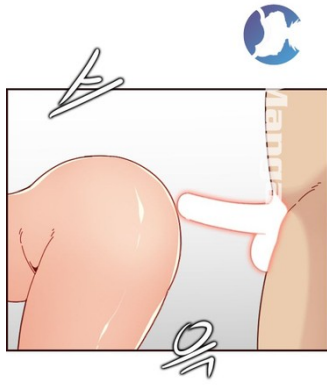


어맛...

뭐, 뭐하려고..?







아앗...
살살, 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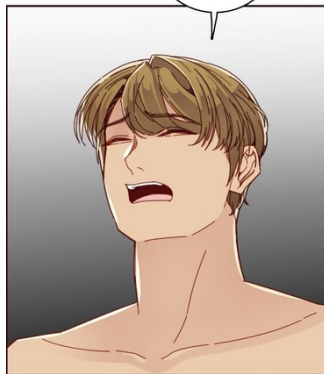


쑤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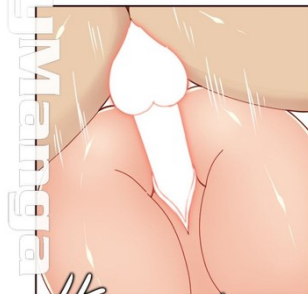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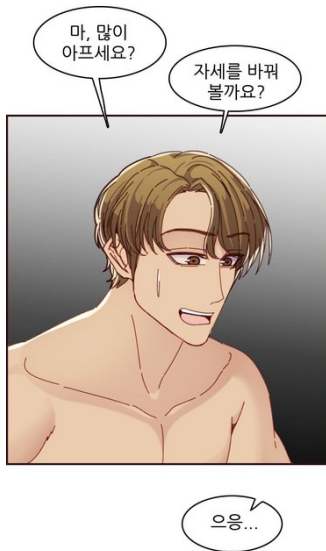
으윽...

엄청
조이는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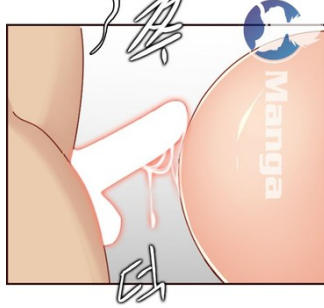
쑤욱





도저히 안 될것 같아.
그만하면 안될까?

아... 네.
알겠어요.



죄송해요,
아줌마.



아냐, 내가
더 미안하지.

도저히
아파서 안되겠어.
몸도 좋지않고.



썩

오늘은
이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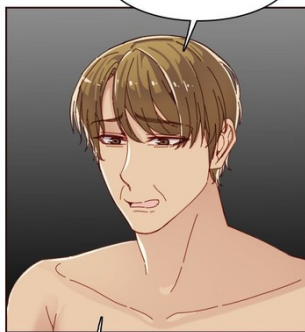
퓨우...

이, 이런걸로
불쌍한 표정
짓지마.

어차피 얘기만
하기로 하고
온거잖아.

그렇긴하죠...

바뀌는건 없어요.
신경쓰지 마세요.



그냥 좀
아쉬울 따름...

으이그~ 알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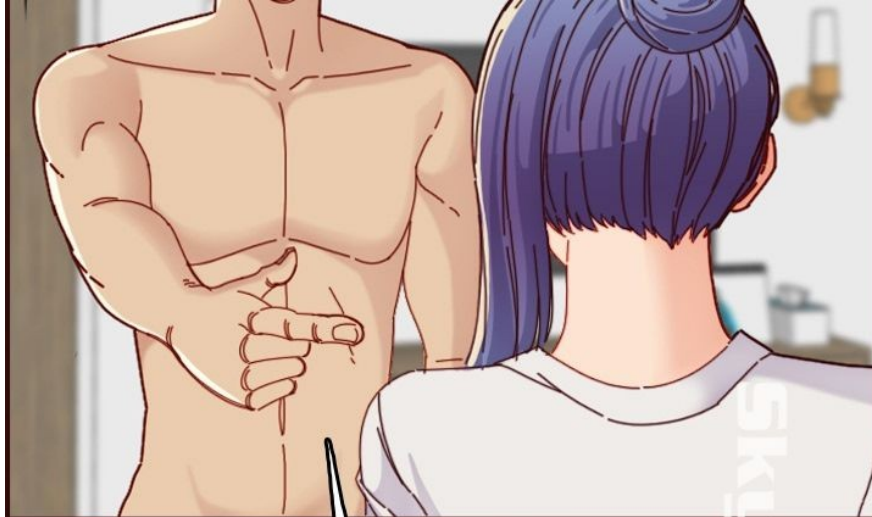
다른날
잡아서 다시
오자.



그럼
됐지?

그날은 나도
준비 단단히하고 올테니,
네 마음대로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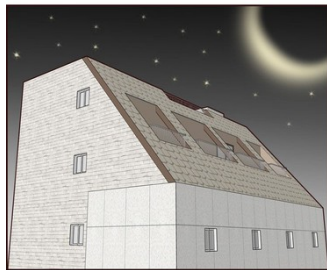
SKYManj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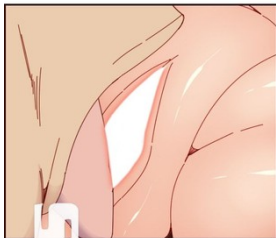
To be continu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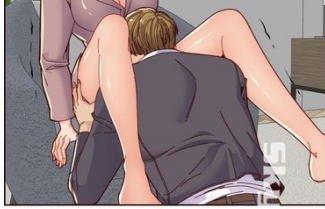
-서페이드-

 <https://blog.naver.com/jc4977>
@ jc4977@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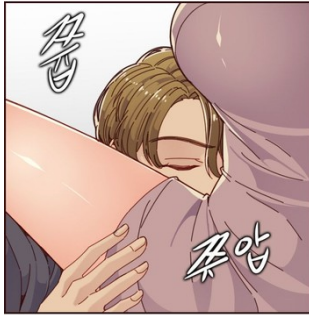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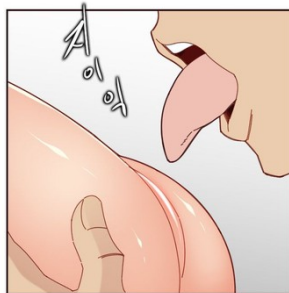




하지마
승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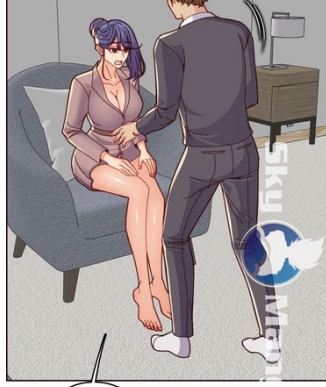
이러면
안돼...



SKUManga

죄, 죄송해요
아줌마...





휴...

얘기하다
흥분한 모습보고
저도 모르게 그만...



아냐...
충분히 이해해.
내 잘못이지 뭐.



그리고 나도
흥분을 하긴
했어.



네가 얘기를
너무 실감나게
해서...

암튼 시간이
넘 늦은것 같아.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맨날 상상만 하다가...



좋았다고
보다 뭐랄까
너무 갑작스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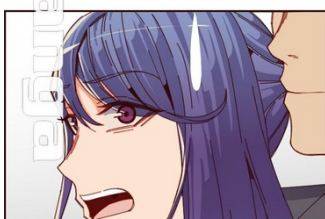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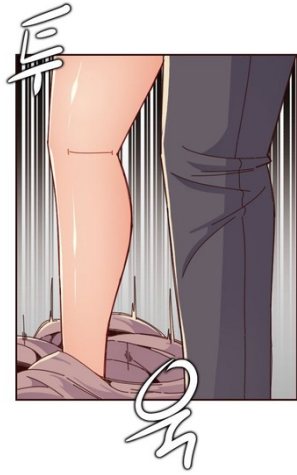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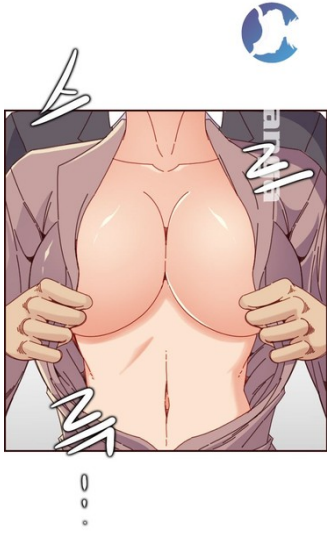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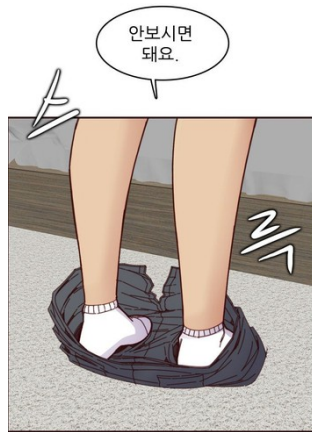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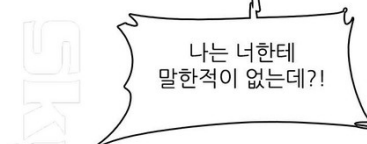
스, 승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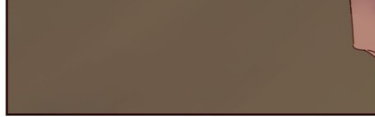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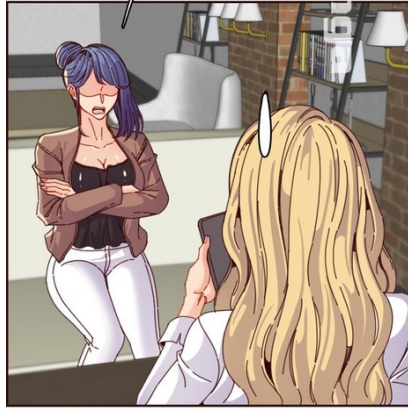








sns에 온통
이혼했다고
눈문 질질 찌는걸
올려놓고 비밀이길
바랬냐?



아...

으이그~ 건물이라도
하나 챙겨서 나오던지
야반도주를 하나?



됐고든~

그냥 대책없이
나와서 어떡해.
집은 얻어놓고
있는거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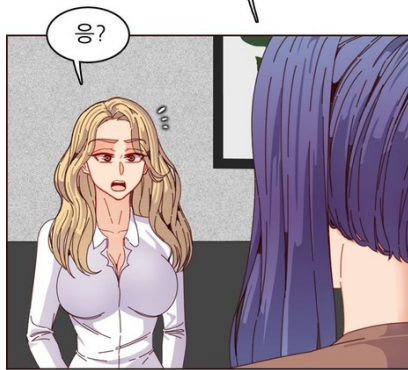


수경이 너...



새로운 방
구할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는건 어떠니?



너희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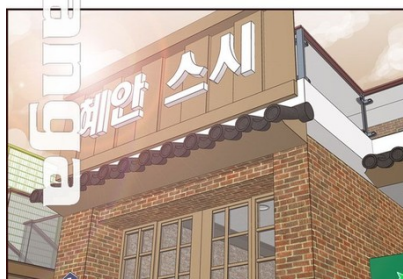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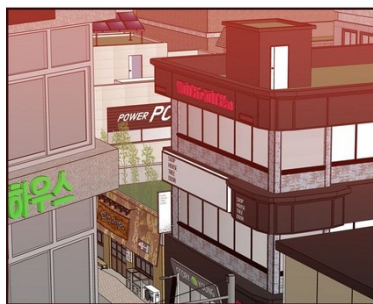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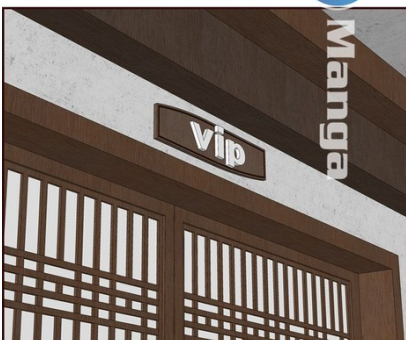
응

넌 괜찮아?



다... 당연히
괜찮지~ 진짜
고맙다 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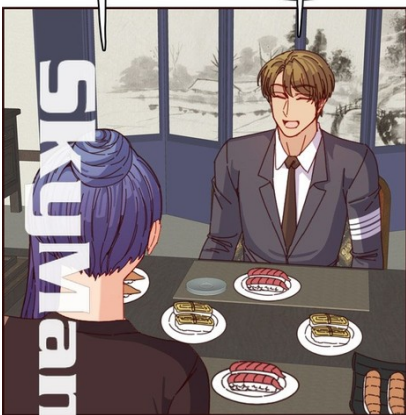


오~



네 덕분에
이런 집에서
먹어보고,
좋다 애~

에이~
월요.



그건 그렇고...



담에 보자고 했더니
하루도 못참고
연락을했냐?

아... 헤헤.
그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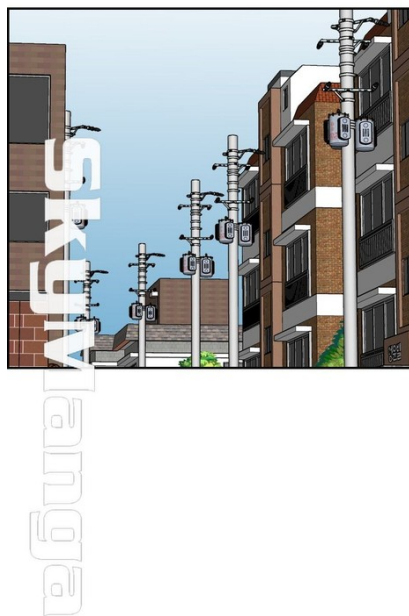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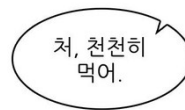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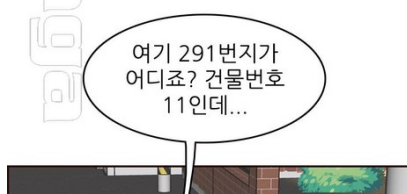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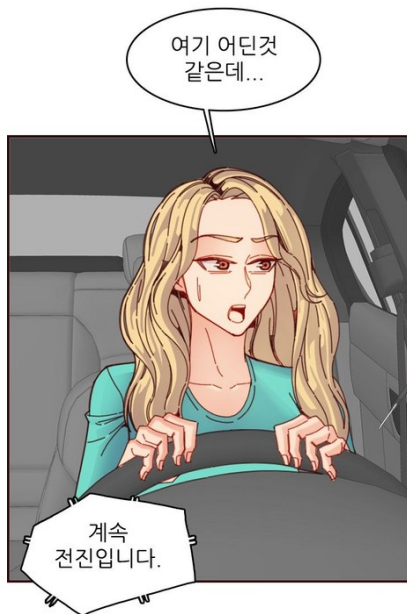
보고 싶기도
하고,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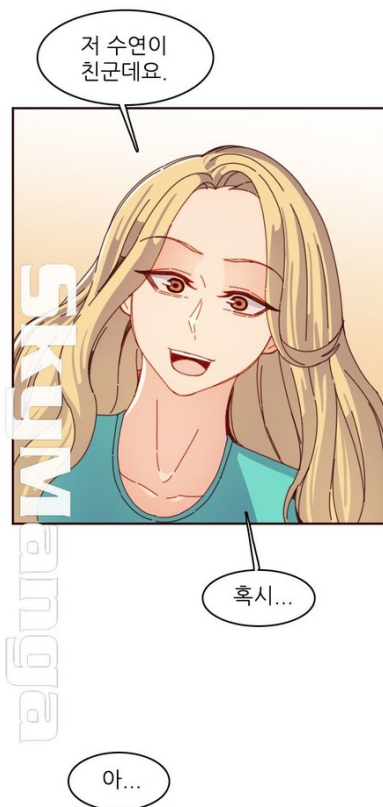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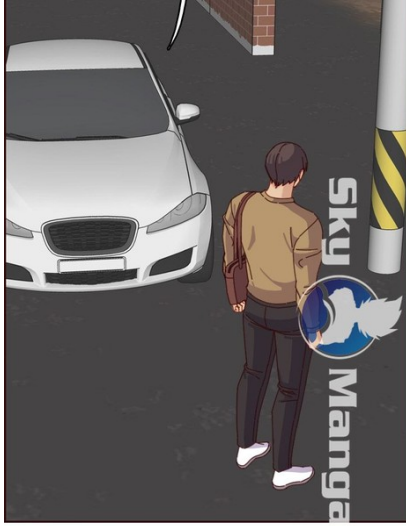
하고 싶기도
하고, 그치?



먹고 가자.











어머나~ 쪼그만할때
봤는데 지금은 완전
어른이네.



아, 네...
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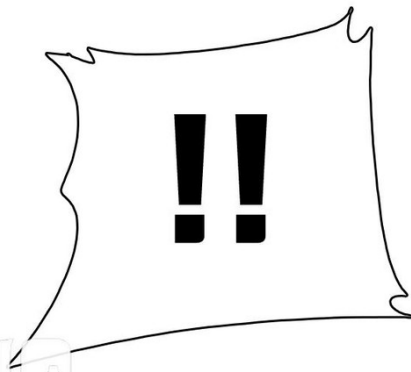
딱 보니까
여자 많이 울리고
다니겠다.
맞지?

제가 많이
울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유~ 이게 왜
안 빠지냐.



skyMan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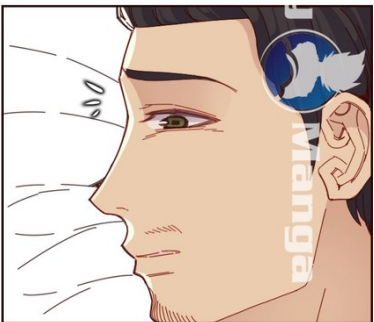
To be continu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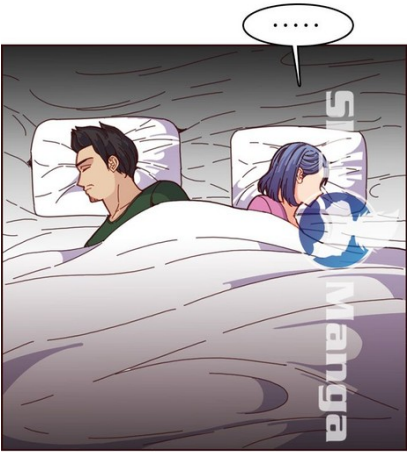
-서재이드-
<https://blog.naver.com/jq4977>
@ jq4977@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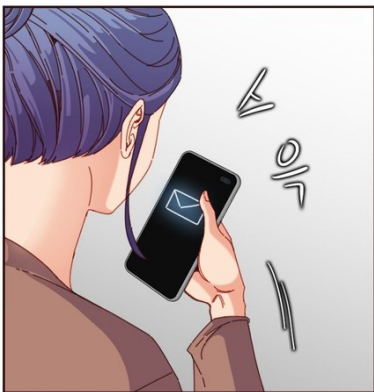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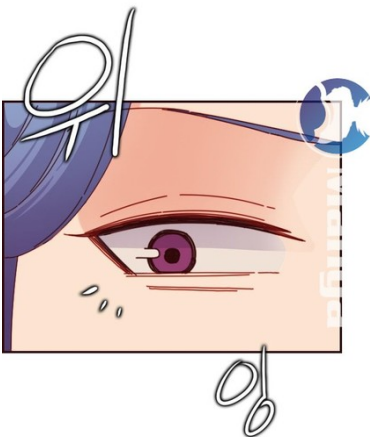


웹툰 코이 콘텐츠











어머머~
아무리 생각해도
대견하다 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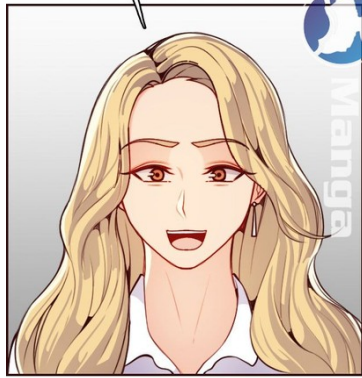
아
뭐래~

우리 나이에
대학을 들어갈
생각을 하는 자체가
대단한거야?



피~

어때?
20여년만에
느끼는 대학교
생활은?



재밌겠다,
진짜.

뭐 별거
있겠니.



과제 쫓아가기
바쁘지.

에이~ 엄살은.
너 예전부터 공부하는
타고 났다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



그건
옛날이고...

뇌도 같이
늙나봐.

팔팔한

요즘 애들따라
가려면 두배로
해도 모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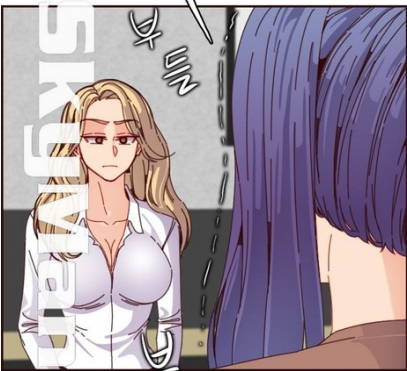
제...

그놈의 결혼만
좀 늦게했어도...!



아우~
짜증나!!

그딴 자식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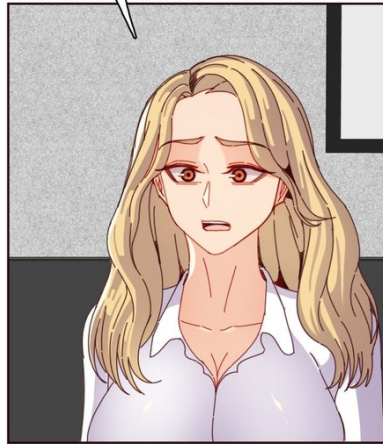


.....

참, 경석씨...
어떻게 됐니?



내가 괜한 짓을
했나 싶어서
맘이 불편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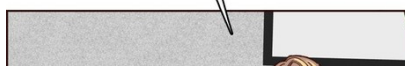
아냐!

잘 알려줬어.
안그랬음 나만 바보
될뻔 했거든.



아, 그래?

너... 괜찮은
거지?





아 그럼~
괜찮지!

그 덕에 나도
요즘 애들 좀
만나고 다니고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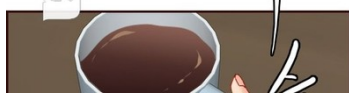
지, 진짜!?

괜찮다더니...
충격이 컸구나.



농담 좀 하자
기지배야.

암튼 내 걱정은
접어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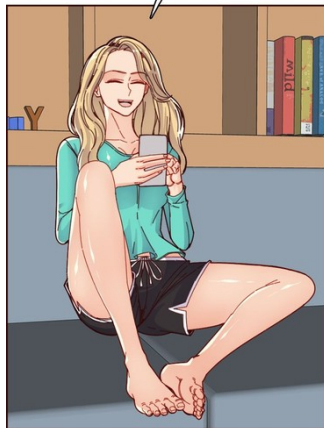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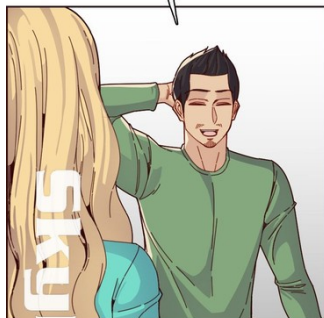
갑자기와서
너무 죄송해요~



수연이한테는
허락을 받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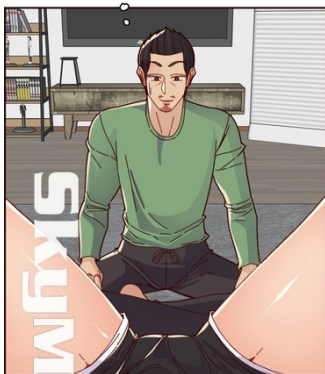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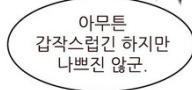
아, 뭐
저도 괜찮습니다.
하핫...



어머~
감사해요.

하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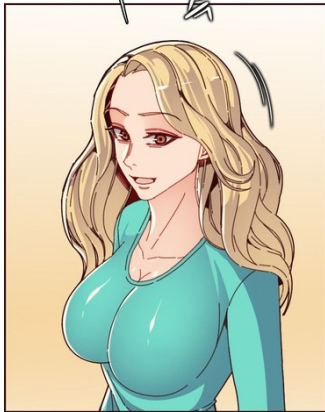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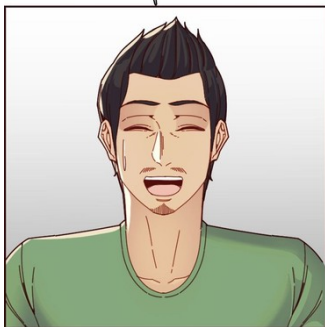
네넷!?

좀 씻어도
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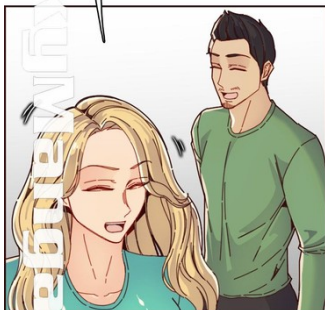


아, 그
그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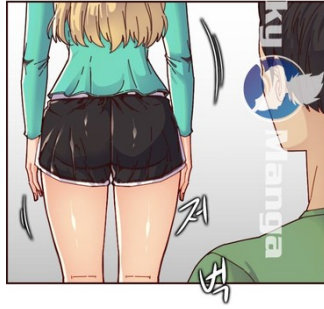
수경씨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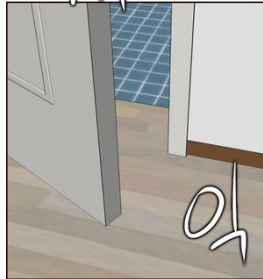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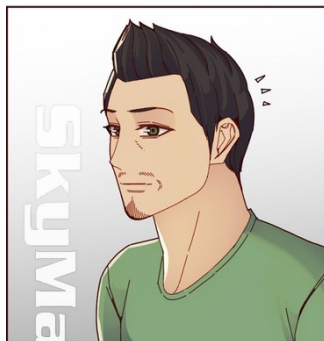
저벅



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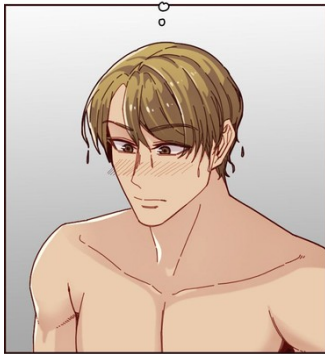
티...







새롭고
기분도 좋은데
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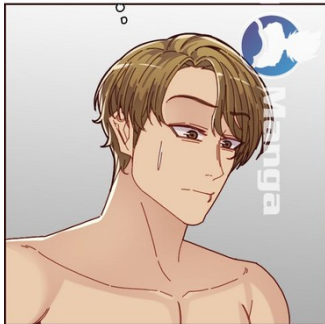


됐다.
이제 욕조에
걸터 앉아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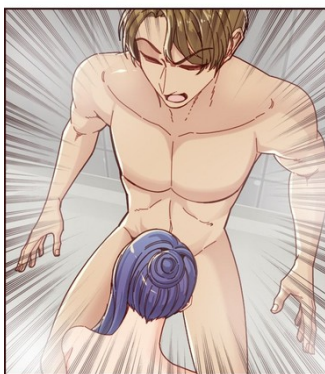


아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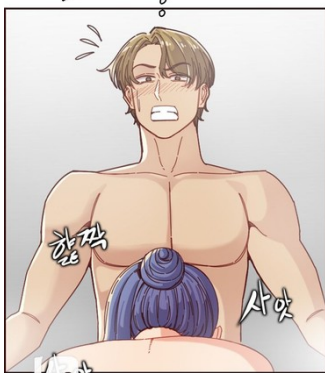
또 뭘
하시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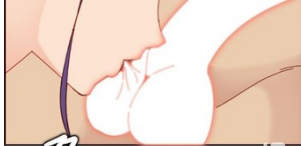


응!?



우아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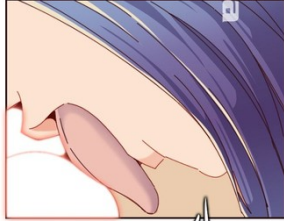




호오음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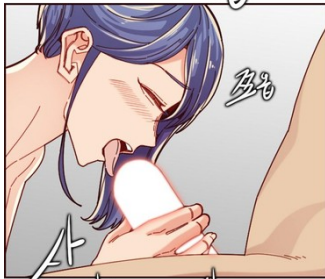


사
악..

으...



좁



사
악 사
악

우으으!!

!





우아앗...앗!



까암...!



아

To be continued...

-사이드-
<https://blog.naver.com/jk1397>
@jk1397/naver.com

SKYman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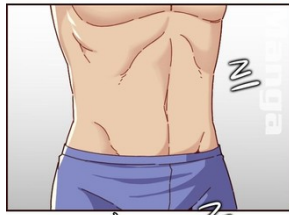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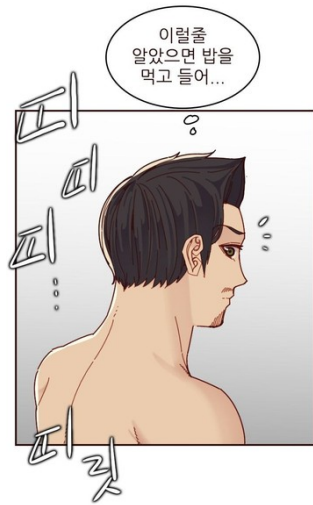


다들
시험기간
인가?

꼬



첻



이럴줄
알았으면 밥을
먹고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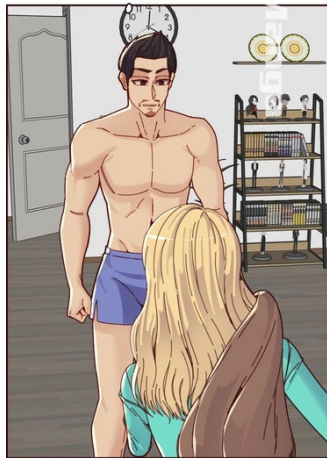
오! 마침
왔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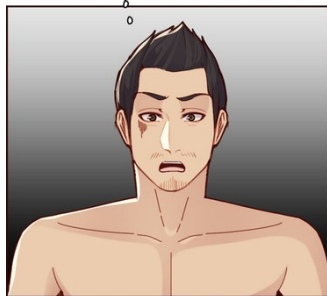
들어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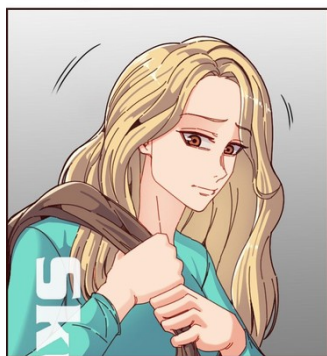
으응?



누, 누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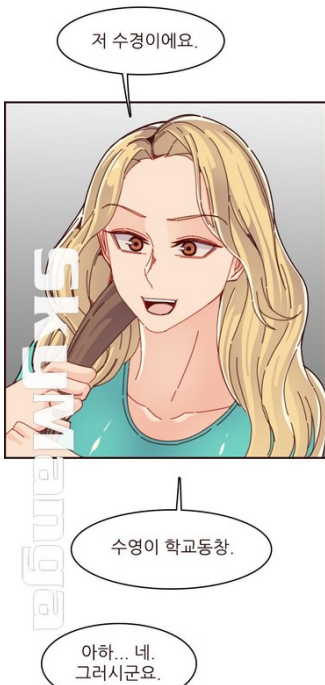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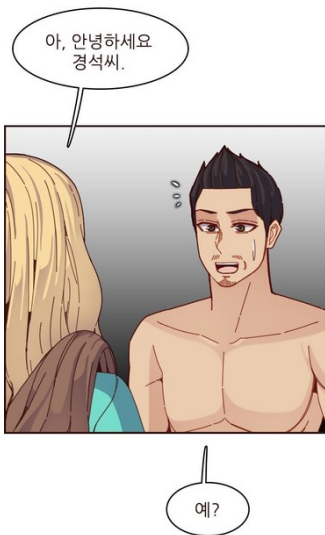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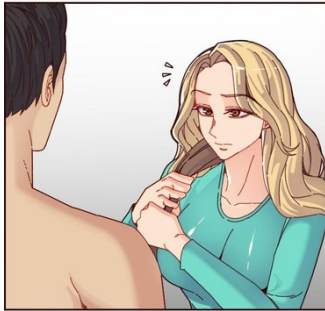
여친은
아닌 것
같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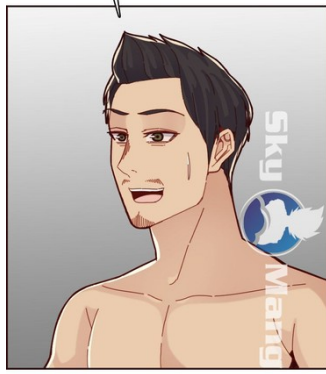


교수님인가?

아직 저렇게
빠져있어서 물어볼
수도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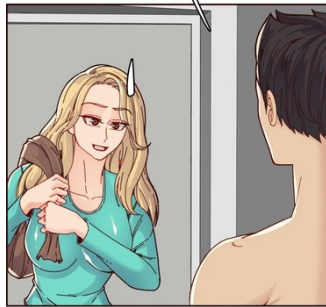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가 안들어왔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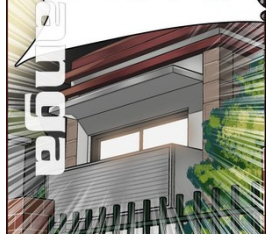
...그것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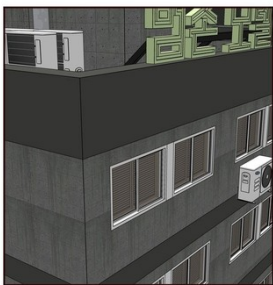
뭐라도 대충
입으셔야겠어요.



!?

우아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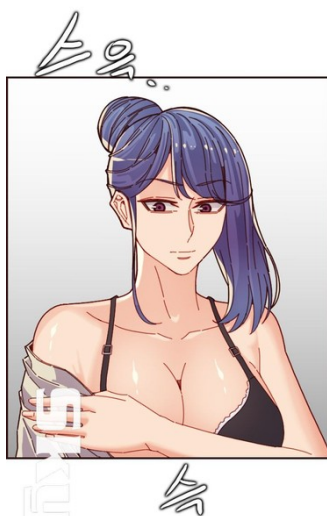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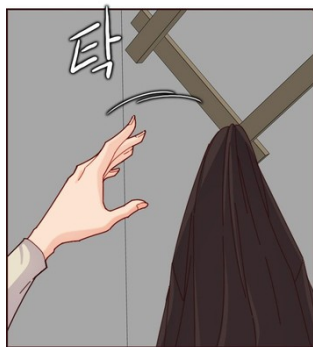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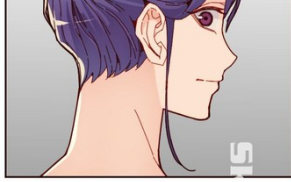
아이참...



그냥 좋은곳으로
가도 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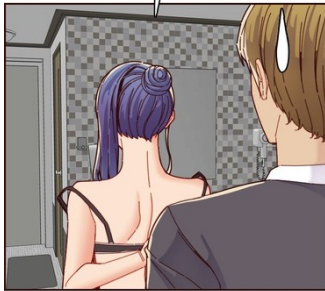


뭐하니?
옷 안벗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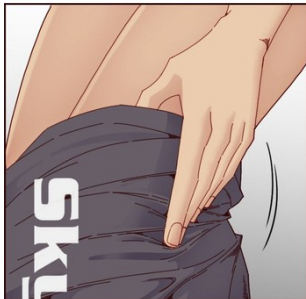


아...네

왜 갑자기
순진한 척이야.
어젠 짐승처럼
달려들더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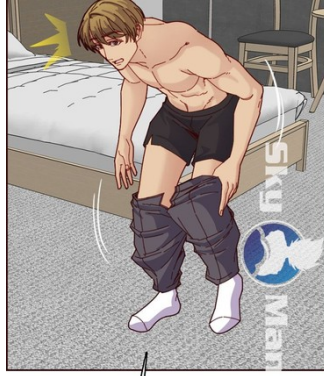


SKUManga

다 벗었음
씻으러 가자.

네?





씨, 씻으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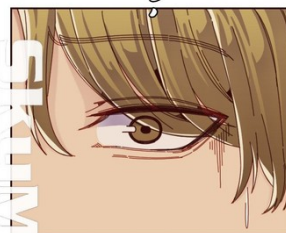
아 그럼
안 씻고 할거야?
빨리 들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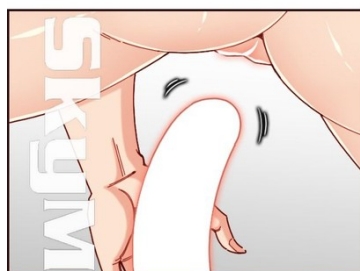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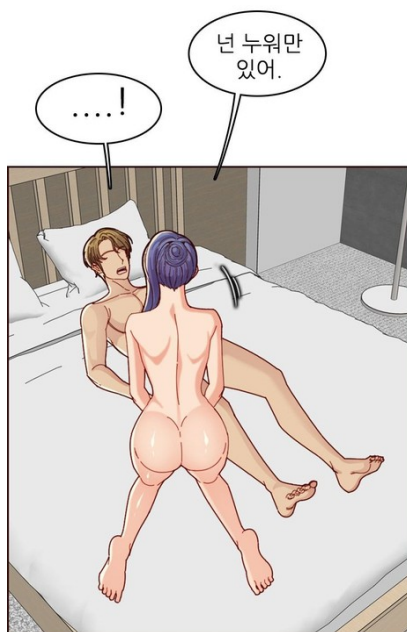


네, 네



이, 이게
아닌데...





썩덕



썩덕

으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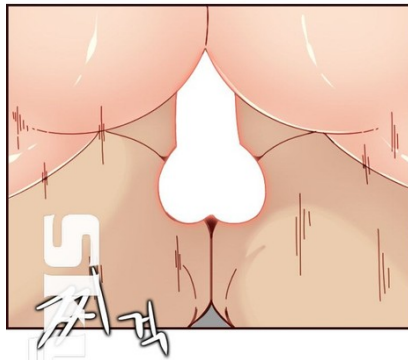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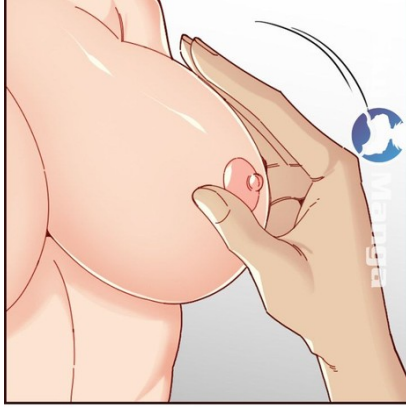
허

승호야,
가슴 만져줘

하악



학





아, 아줌마
나올 것 같아요.

에?
벌써?



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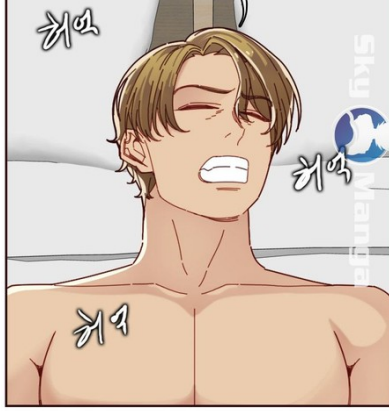
아 뭐야~
왜그래 갑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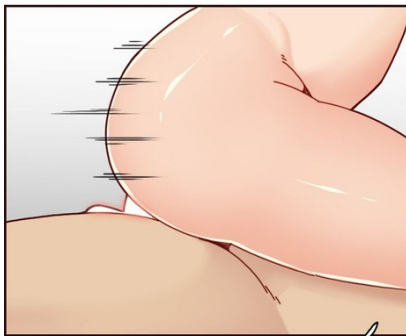
훗...
지가 별수
있나.

위에 계시니까
제가 조절이 안돼요.





쫘만
참아봐~



으아앗
안돼요.

더이상
못참...!



으윽...!

어, 어맛

아흑





아...!



난 하다만
느낌이라...
영접접한데...



죄송해요,
아줌마...





글: Mehelo
그림: 서재익

-71화-





뭐 죄송할거
까지야...

어우~ 뭐야

푹



꾸으
으

계속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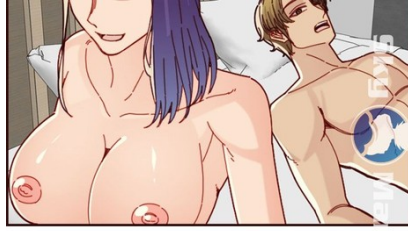
이건
아냐...



순진 청순한
엄마친구를 내가
길들이는 컨셉이어야
하는데...

이건 마치
내가...





승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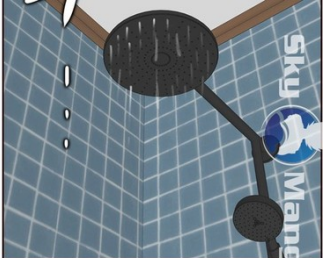
금방씻고
올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

저... 아줌마,
또요!?





-서페이드-



<https://blog.naver.com/jcj4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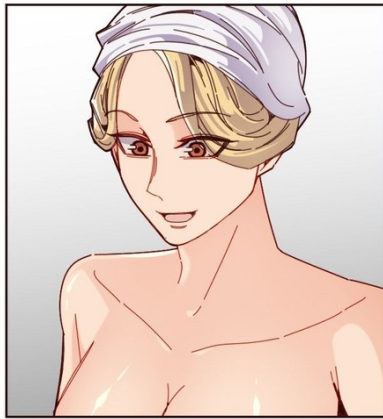
@ jcj4977@naver.com



웹툰 코이 컨텐츠



아~ 개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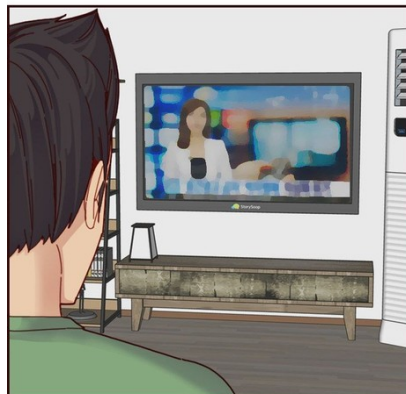


오늘은
간만에 꿀잠
자겠는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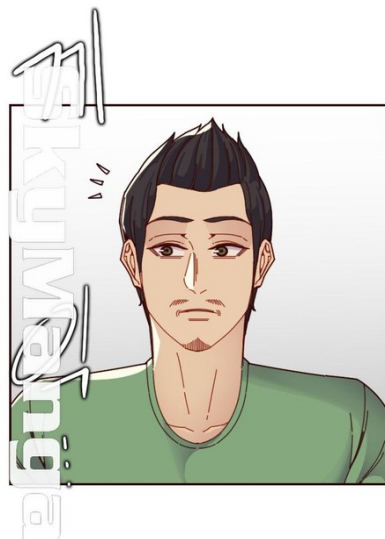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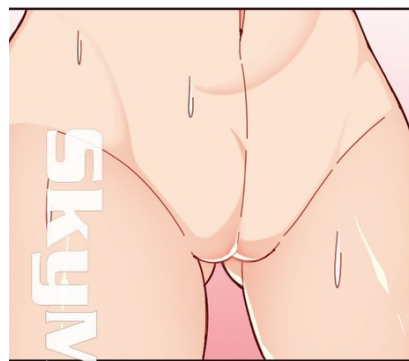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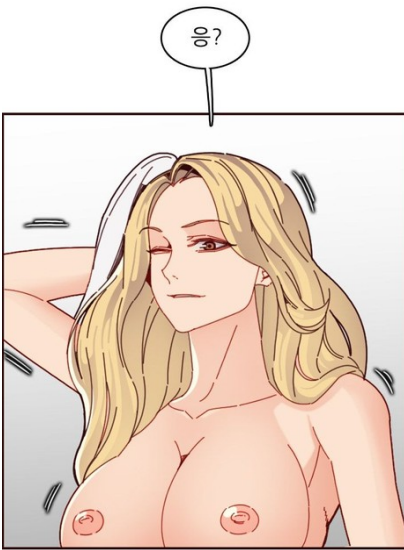
작년보다
5% 상승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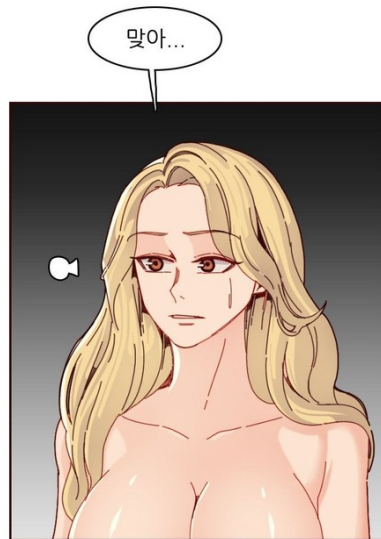


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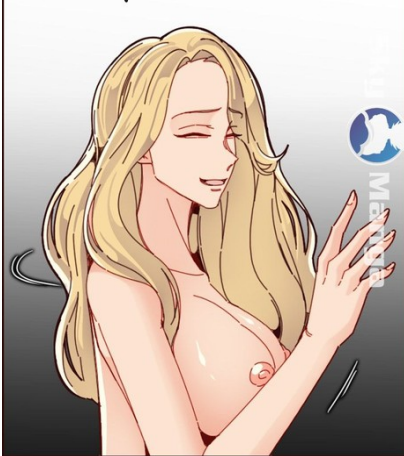


우리집이
아니었지.

으이구~
정신 좀 차리자
수경아.



호호호,
죄송해요
경석씨~



저 먼저
들어갈게요~

